

장애인의 건강현황

누구나 아플 때 의료기관을 이용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전체국민에 비해 의료기관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전반적인 건강현황에서 만성질환과 비만 유병률, 스트레스 인지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평균 1.5배 높고, 건강검진 수검률도 비장애인에 비해 낮습니다.

미충족 의료율 (의료기관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



만성질환·비만·스트레스 관련 현황

	장애인	비장애인
만성질환 유병률	84.3% 1.7배 ↑	48.2%
비만 유병률	42.3% 1.2배 ↑	34.9%
스트레스 인지율	58% 2.1배 ↑	27.9%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보건의료관리사업, 2020 /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실태조사, 2018)

건강검진 수검률

	장애인	비장애인
일반건강검진	63.7% 1.2배 ↓	76.6%
암 검진	45.1% 1.2배 ↓	53.4%
구강 검진	20.1% 1.5배 ↓	31.1%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보건의료관리사업, 2020)

장애인이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애인의 보건의료접근성 저해 요인

경제적 요인

“병원에 가고 싶는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요”



물리적 요인

“병원에 가고 싶는데 너무 멀어요”
“편의시설이 없어 불편해요”
“이동 수단이 없어요”



문화적 요인

“병원에 가도 직원들이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장애인이 필요로 할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의 보건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경제적 지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장애아동 포함)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는 보행장애 등으로 이동 제약이 따르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지원서비스입니다.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장애 이해 및 인식 교육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또 청각장애나 시각장애, 발달장애, 언어장애 등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별도의 교육도 제공합니다.